

제주의 봉수(烽燧)와 연대(煙臺)

언어와 문자 연구소장 오 창 명

1. 봉수(烽燧)와 연대(煙臺)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봉수와 연대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봉수와 연대는 조선 초기에 오름 꼭대기나 바닷가의 높은 언덕·동산 위에 설치해서 주변 정세를 살피고 이상이 있을 때 횃불을 올리거나 불을 피워 연기를 올려서 이웃 또는 상급 기관이나 관청에 알리던 통신제도였다. 이 봉수와 연대가 남아 전하거나 복원되어서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 유산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실 봉수는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연대는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23곳이나 된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는 봉수가 적게는 18곳, 많게는 25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연대는 17세기에 39곳, 18세기에 38곳, 19세기에는 30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대마다 봉수 수와 연대 수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제주도에서 발간된 여러 책자를 보면,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봉수가 25곳, 연대가 38곳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봉수대나 연대를 소개한 책자들을 보거나 이들 봉수대 터나 연대 터 등에 설치된 푯말을 살펴보면, 엉뚱하게 이름을 붙이거나 황당하게 설명한 문구가 눈에 많이 띄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가령 지금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바닷가 동산 위에 설치된 연대는 ‘옛개연대’라 부르고, 한자차용표기로 倭浦煙臺(왜포연대)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왜포연대’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설치되었던 연대는 “근등개연대>그등에

연대'라 부르고, 한자차용표기로 末等浦煙臺(말등포연대)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말등포연대'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대 이름은 각각 '왓개연대'와 "금등개연대>그등애연대'이다. 그러므로 '왓개연대'를 '왜포연대'라 하거나 '그등애연대'를 '말등포연대'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연대 이름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협지연대

2. 오거법(五擧法 · 五炬法)

제주도 연대를 설명한 글이나 연대 터에 세워진 팻말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특히 현재 남아 전하는 봉수대에 다섯 개의 봉화소를 설치한 곳은 서울의 남산봉수(목멱산봉수)인 듯하다. 제주도 봉수와 연대는 다섯 개 봉화소를 설치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듯하다.

통신방법을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하는데 거화법은 오거법으로 평상시는 1개, 이

양선이 나타나면 2개, 지경에 가까이 오면 3개, 지경을 침범하면 4개, 접전하게 되면 5개로 통신했다.

〈『화산섬, 제주문화재 탐방』(2009:350)〉

평시에는 한 번, 적선이 나타나면 두 번, 해안에 접근하면 세 번, 상륙 또는 해상 접전하면 네 번, 상륙 접전하면 다섯 번 연기를 올렸다.

〈『조부연대 터』 뜻들 설명〉

우리나라 봉수 제도는 오거법(五擧法·五炬法)을 활용했다고 한다. 아래 『세종실록』과 『경국대전』, 『만기요람』, 『동전고』 등의 설명에서 오거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래 『단종실록』과 『중종실록』 등의 기사를 보건대, 오거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개 연대(봉화소)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봉화나 연기를 드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2번 들었는지, 3번 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고, 또한 든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든 것인지, 두 번째 든 것인지 잘 구분이 안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兵曹啓, 前日各道烽火, 令無事則一擧, 有事則再擧. 乞自今倭賊在海中則再擧, 近境則三擧, 兵船與戰則四擧, 下陸則五擧. 如陸地賊變, 在境外則再擧, 近境則三擧, 犯境則四擧, 與戰則五擧, 晝則代以烟氣. 其不用心觀望, 烽火干及所在官司, 依律科罪. 上王從之 /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날 각도의 봉화는 무사하면 1번 들게 하고, 유사하면 2번 들게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왜적이 해중에 있으면 <봉화틀> 2번 들고, 근경에 오거든 3번 들고, 병선이 서로 싸울 때는 4번 들고, 하륙하게 되면 5번을 들게 할 것입니다. 만일 육지에서 적변이 <일어날 때> 지경 밖에 있으면 2번 들고, 지경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3번 들고, 지경을 범하였으면 4번 들고, 맞붙어 싸우게 되면 5번 들게 할 것입니다. 낮에는 연기로 대신하되, 정신차려서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 봉화간이나 그 곳에 있던 관사는 법에 의하여 벌을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1419) 5월 경오(26일)〉

烽燧 : 平時一炬, 賊現刑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 봉수: 봉수는 평상시에는 1거를, 적이 나타나면 2거를, 경계에 접근하면 3거를, 경계를 범하면

4거를, 접전하면 5거를 올린다.…… 혹 구름이 끼어서 어둡거나 바람이 세차서 거화로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한다.

〈『경국대전』 권4, 병전, 봉수〉

烽燧：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守直禁軍告兵曹外則伍長告鎮將 / 봉수：평시에는 햇불이 하나요, 적이 나타나면 햇불이 둘이요, 국경에 가까이 오면 햇불이 셋이요, 국경을 침범하면 햇불이 넷이요, 교전 상태에 들어가면 햇불이 다섯이다.

〈『만기요람』(조선 후기) 군정편1, 봉수〉

烽燧引：夜曰烽 晝曰燧 漢時匈奴入雲中烽火通於甘泉 趙王獵而魏北傳烽 則平時不舉烽寇至則舉 概可知也 自唐以後夜輒舉烽故謂之 / 밤에 올리는 것을 봉(햇불)이라 하고, 낮에 올리는 것을 수(연기)라 한다. 〈중국〉 한나라 때 흉노족이 구름 속(높은 곳)에 올라가서 봉화로 간취안(甘泉)과 통했다. 조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봉화로 위북에 봉화로 전했다. 곧 평시에는 봉화를 들지 않고 외구가 이르면 봉화를 들었으니 대개 알 만했다. 당나라 이래로 밤에 문득 봉화를 올렸기 때문에 봉수라고 했다.

〈『홍재전서』(1814) 권13, 序引6, 翼靖公奏藁軍旅類叙[庚申]〉

烽燧：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守直禁軍告兵曹外則伍長告鎮將

〈『등전고』(19세기 말) 봉수〉.

兵曹據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啓本報都統府以啓曰 “每一烽火，列置五臺者，欲令隨其賊變，或二三炬’或四五炬，一時竝舉也 今烽卒無知，只於一臺，隱見其炬，以準其數，若遠處烽卒不見其始，但見其終，則必致錯誤，請自今烽火，隨賊變，一時列舉” 從之 / 병조에서 경상도 우도 수군 처치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도통부에 알려져 아뢰기를, “매 한 개의 봉화마다 다섯 대의 봉수대를 벌려 설치한 것은 적변에 따라 2, 3개의 햇불이나 혹은 4, 5개의 햇불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들게 하고자 함인데, 지금 봉졸들이 무지하여 다만 한 대의 봉수대에서 그 햇불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수를 준하오니, 만약 먼곳의 봉졸이 그 처음의 햇불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만을 보았다면 반드시 착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화를 적변

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단종 2년(1454) 11월 을묘(8일)〉

且烽燧之事，邊方有變之後，雖馳駟以報之，勢必遲緩，故使郡縣連次舉火，使知邊警之有無，此實軍機關重之事也，而近不如法，雖至於賊犯邊境，一無四炬·五炬之舉，而例以平時一炬舉之，此，守令懶慢，不謹檢舉之故也。申明中滯之罪，依軍法施行何如 / 그리고 봉수의 일은, 변방에 변이 생긴 뒤에 역말을 달려서 보고면 형세가 반드시 더딜 것이므로, 군현마다 연달아 봉화를 들어서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군사 기무의 중대한 일이다. 그런데 근래는 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적이 변경을 침범해 와도 사거와 오거를 드는 자는 전혀 없고 으레 평시에 쓰는 일거를 들고 있으니, 이것은 수령들이 게을러서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도에서 폐기한 죄를 거듭 밝혀서 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종실록』의 중종 27년(1532) 9월 을축(20일)〉

연기를 피우는 재료의 경우 육지부는 토끼똥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배설물을 말려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주로 마른 말똥(말똥)을 썼다고 한다.

한편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와 『은봉전서(隱峯全書)』를 보면, 오거법이 앞의 일반적인 오거법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앞의 오거법은 근경하면 3거, 범경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를 들도록 했는데, 이 오거법은 범경하면 3거, 합전하면 4거, 하륙하면 5거를 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거법도 육지로 이루어진 지역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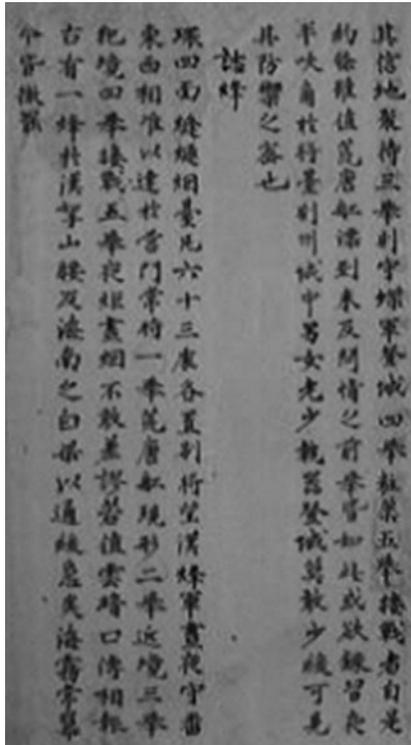
自古烟臺之設 專爲外賊 而平時則一炬 見形則二炬 犯境則三炬 合戰則四炬 下陸則五炬 / 예로부터 연대를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알리게 했다. 평시에는 일거, 현형하면 2거, 범경하면 3거, 합전하면 4거, 하륙하면 5거를 들도록 했다.

〈『李忠武公全書』 권14, 부록60, 紀實 下〉와 〈『隱峯全書』 권8, 記事〉

위의 『세종실록』과 『이충무공전서』를 보면, 해안가 봉수와 육지 봉수의 거화법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 제주도의 봉수와 연대 자료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 관련 기록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誌烽：環四面 燧燧烟臺 凡六十三處 各置別將 望漢烽軍晝夜守番 東西相准 以達於營門 常時一舉 荒唐船現形二舉 近境三舉 犯境四舉 接戰五舉 夜炬晝烟 不敢差謬 若值雲暗 口傳相報 古有一烽於漢拏山腰及海南之白梁 以通緩急矣 海霧常曩 今皆撤罷 / 제주 섬 사면을 둘러가며 세운 봉수와 연대는 무릇 63곳이다. 각기 별장과 망한, 봉군을 두어 밤낮으로 지킨다. 동서로 서로 준거하며 영문에 도달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봉화 1개를 올리고, 황당선이 나타나면 봉화 2개를 올린다. 지경에 가까워지면 봉화 3개를 올리고, 지경을 침범하게 되면 봉화 4개를 올린다. 접전(接戰)하게 되면 봉화 5개를 올린다. 밤에는 봉화로 하고 낮에는 연기로 하며, 감히 어기거나 오류가 없다. 만약 구름 안개로 어두운 때를 만나면 구전으로 서로 알린다. 옛날에는 한라산 허리에도 하나의 봉수대가 있었다. 해남의 백도[白梁]에 미치어 완급을 통보하였으나, 해무가 항상 자욱하게 덮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철폐하였다.

〈『남한박물』〉



其信地聚待三舉則守堞軍登城四舉柱築五舉接戰者自是約條難值荒唐舡漂到未及問情之前舉皆如此或欲鍊習夜半吹角於將基則州城中男女老少執器登城莫敢少緩可見其防禦之密也

誌烽

環四面燧燧烟臺凡六十三處各置別將望漢烽軍晝夜守番東西相准以達於營門常時一舉荒唐船現形二舉近境三舉犯境四舉接戰五舉夜炬晝烟不敢差謬若值雲暗口傳相報古有一烽於漢拏山腰及海南之白梁以通緩急矣海霧常曩今皆撤罷

『남한박물』 (1704)의 '봉수' 조 원문(왼쪽)과 흑백 복사본(오른쪽)

3. 제주의 봉수와 연대는 몇 개였을까?

제주도 봉수나 연대를 설명한 책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제주도 봉수는 25개가 있고, 연대는 38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개수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봉수와 연대이지, 조선시대 내내 이 수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봉수대가 24개소라고 소개한 안내판도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설명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읍지류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는 25개소의 봉수대와 38개소의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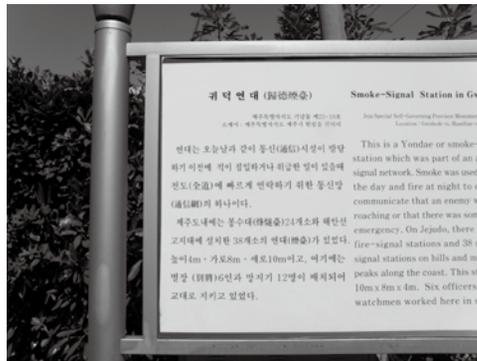
〈『화산섬, 제주 문화재 탐방』 2009:350〉

제주도내에는 봉수대(烽燧臺) 24개소와 해안선 고지대에 설치한 38개소의 연대(煙臺)가 있었다.

〈『귀덕연대』와 『우지연대』 안내판〉



봉수가 25개라 설명한 뜻돌의 예



봉수가 24개라 설명한 안내판의 예

17세기 자료인 이원진의 『탐라지』(1653)를 보면, 다음과 같이 25개소 봉수가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 : 10곳

紗羅(사라) 元堂(원당) 西山(서산) 笠山(입산) 往可(왕가) 道圓(도원) 水山(수산) 高內(고내) 道內(도내) 板浦(판포)

정의현 : 10곳

南山(남산) 獨子(독자) 小首山(소수산) 城山(성산) 指尾(지미) 達山(달산) 兔山(토산) 紫
蒲(자포) 狐村(호촌) 三梅陽(삼매양)

대정현 : 5곳

松岳(송악) 摹瑟(모슬) 遮歸(차귀) 嶮山(호산) 龜岳(귀악)

그런데 제주목의 경우, 朝天浦(조천포)와 敦義嶼(돈의서)에도 봉수가 있다가 폐지
했다고 했으니, 이 둘을 합치면 27개 봉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 기록
인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에는 다음과 같이 23곳의 봉수가 기록되어 있
다. 그러니까 앞 기록과 비교하면 많게는 4곳, 적게는 2곳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순 개수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봉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나만
예를 들면, 16세기까지도 정의현에 있었던 餘乙溫烽燧(여을온봉수)가 17세기 자료
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목 : 8곳

沙羅岳烽燧(사라악봉수) 別刀烽燧(별도봉수) 元堂岳烽燧(원당악봉수) 笠山岳烽燧(입산
악봉수) 道道里岳烽燧(도도리악봉수) 水山岳烽燧(수산악봉수) 高內岳烽燧(고내악
봉수) 板乙浦烽燧(판을포봉수)

정의현 : 10곳

南山烽燧(남산봉수) 吾音沙只岳烽燧(오음사지악봉수) 餘乙溫烽燧(여을온봉수) 小水山
烽燧(소수산봉수) 只末山烽燧(지말산봉수: 只末山烽燧?) 達山烽燧(달산봉수) 兔山
烽燧(토산봉수) 錢月論烽燧(전월론봉수) 狐兒村烽燧(호아촌봉수) 三每陽烽燧(삼매
양봉수)

대정현 : 5곳

松岳烽燧(송악봉수) 毛瑟岳烽燧(모슬악봉수) 遮歸岳烽燧(차귀악봉수) 堀山烽燧(굴산봉
수) 居玉岳烽燧(거옥악봉수)

이보다 앞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에는 적게는 9곳, 많게는 11곳이 기록되어 있고, 정의현에는 적게는 5곳, 많게는 7곳이 기록되어 있고, 대정현에는 적게는 4곳, 많게는 5곳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 : 9곳(10곳? 11곳?)

州東門(주동문) 別刀(별도) 元堂(원당) 西山(서산) 笠山(입산)? 南門(남문) 道道里山(도도리산) 水山(수산) 高內(고내) 郭山(곽산) 板浦山(판포산)?

정의현 : 5곳(6곳? 7곳? 8곳?)

縣城南達山(현성남달산: 縣城南山?) 岳沙只(악사지) 水山(수산) 達山(달산) 兔山(토산) 狐兒村(호아촌) 三每陽(삼매양)? 只未山(지미산)?

대정현 : 4곳(5곳?)

縣東仇山(현동구산) 居玉岳(거옥악) 縣南貯里別伊(현남저리별이) 毛瑟浦岳(모슬포악) 遮歸岳(차귀악)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1439) 윤2월 임오(4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망보는 곳이, 제주목은 동쪽 김녕(金寧)에서 서쪽 널개[板浦]까지 10곳이고, 대정현은 서쪽 차귀(遮歸)에서 동쪽 거옥(居玉)까지 5곳이고, 정의현은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 只未山?)까지 7곳이라 했다. 모두 합치면 22곳이 된다. 이 수는 『세종실록』 지리지 수와 다르다.

연대도 시대마다 그 수가 달랐다. 가령 17세기 말 자료인 이증의 『남사일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물음표)를 단 곳은 기록하지 않았거나 거쳐간 순서가 의심되는 곳이다. 가령 조천연대(朝天煙臺)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이 연대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화북연대(禾北煙臺)는 사라봉수(沙羅烽燧)를 본 뒤 바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금 별도오름(별도봉)에 있었던 연대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별도봉에 연대가 있다가, 나중에 화북진 동북쪽으로 옮긴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탐라순력도』를 보면, 화북성 동북쪽 바닷가에 설치된 연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증은 迎婚浦西邊煙臺(영혼포서변연대)와 末等浦西岸煙臺(말

등포서안연대)를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두 연대 터는 어디인가?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서는 영혼포서변연대 터는 구명되지 않았다. 다만 성산읍 온평리 1355-1번지에 있는 연대를 말등포연대라 하고 있다. (『제주의 방어유적』, 1996, 제주도, 258쪽) 과연 이곳이 말등포연대인지는 의문이다. 연구자들이 제대로 구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제주목 동문 → 沙羅烽燧(사라봉수) → 禾北煙臺(화북연대)? → 元堂烽燧(원당봉수) → 朝天煙臺(조천연대)? → 倭浦煙臺(왜포연대) → 咸德浦煙臺(함덕포연대) → 西山烽燧(서산봉수) → 笠山烽燧(입산봉수) → 無注浦西岸煙臺(무주포서안연대) → 佐哥馬浦北煙臺(좌가마포북연대) → 王介烽燧(왕개봉수) → 白沙汀東煙臺(백사정동연대) → 指尾烽燧(지미봉수) → 頭遠浦北邊煙臺(두원포북변연대) → 성산봉수(城山烽燧) → 五照浦西邊煙臺(오조포서변연대) → 首山烽燧(수산봉수) → 挾才浦東邊煙臺(협재포동변연대) → 迎婚浦西邊煙臺(영혼포서변연대) → 末等浦西岸煙臺(말등포서안연대) → 獨才烽燧(독재봉수) → 南山烽燧(남산봉수) → 川尾浦西邊煙臺(천미포서변연대) → 達山烽燧(달산봉수) → 所馬老浦西邊煙臺(소마로포서변연대) → 兎山烽燧(토산봉수) → 伐浦西邊煙臺(벌포서변연대) → 金老浦西邊煙臺(금로포서변연대) → 又尾浦西邊煙臺(우미포서변연대) → 紫蒲烽燧(자포봉수) → 狐村烽燧(호촌봉수) → 甫木浦西邊煙臺(보목포서변연대) → 三梅陽烽燧(삼매양봉수) → 法閑浦東邊煙臺(법한포동변연대) → 塞水浦北邊煙臺(색수포북변연대)? → 所訖川浦北邊煙臺(소흘천포북변연대) → 龜山烽燧(구산봉수) → 星老川西邊煙臺(성로천서변연대) → 唐浦東邊煙臺(당포동변연대) → 蠓山烽燧(호산봉수) → 山房浦北邊煙臺(산방포북변연대) → 貯星烽燧(저성봉수) → 行魚浦北邊煙臺(행어포북변연대) → 攀瑟烽燧(모슬봉수)? → 西林浦煙臺(서림포연대) → 堂山烽燧(당산봉수) → 釜浦煙臺(부포연대) → 板浦煙臺(판포연대) → 排齡浦煙臺(배령포연대) → 早里煙臺(조리연대: 晚早里煙臺/晚早烽燧) → 馬頭浦煙臺(마두포연대) → 潛水浦煙臺(잠수포연대) → 牛池浦煙臺(우지포연대) → 歸德浦煙臺(귀덕포연대) → 道內烽燧(도내봉수) → 涯月浦西邊煙臺(애월포서변연대) → 高內浦南邊烽燧(고내포남변봉수: 高內烽燧) → 南頭浦東邊烽燧(남두포동변봉수: 南頭浦煙臺) → 水山逢燧(수산봉수) → 藻腐浦東邊煙臺(조부포동변연대) → 道圓浦烽燧(도원포봉수) → 修浦西邊煙臺(수포서변연대) → 제주목 서문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봉수와 연대 수를 헤아릴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봉수와 연대의 수는 시대마다 다르고, 설치된 곳도 시대마다 달랐다.

제주도에 봉수를 처음으로 설치했을 당시 봉수 이름과 수 (『세종실록』 지리지)



4. 제주의 봉수와 연대는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제주의 봉수는 주로 오름 꼭대기에 설치하고, 연대는 바닷가 높은 언덕이나 동산 위에 설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봉수 이름은 주로 오름 이름에서 앞 부분을 가져오고 뒷 부분에 봉수나 봉, 망 등을 덧붙여 ‘○○봉수’, ‘○○봉’, ‘○○망’ 등으로 불렀다. 오늘날도 마치 오름 이름인 듯이 ‘○○망’이 전해오거나, 아예 ‘망오름>망오름’으로 바뀌어 전하기도 한다.

토산리에 있는 토산오름을 ‘토산망’이라 하고, 하원리에 있는 ‘거북오름>거옥오름’을 ‘굿산망’이라 하고, 삼양1동에 있는 ‘죽은웬당오름’을 ‘망오름’이라 하고, 상명

5. 제주의 봉수와 연대 모습과 규격은 어땠을까?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1439) 윤2월 임오(4일)’ 기록에 의하면, 봉화가 있는 곳에 연대(煙臺: 이 연대를 봉화대의 뜻으로 보기도 하고, 봉화대 위 가운데 불을 피우도록 만든 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를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자라고 했다.

우리나라 재(尺)의 길이는 고려 및 조선 초기까지 32.21cm를 1자로 쓰고, 세종 12년에 31.22cm를 한 자로 썼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말(1902년)에 곡척(曲尺)으로 바꾸면서 30.303cm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한편 세종 28년에 목공과 건축에 사용하는 영조척(營造尺: 30.65cm)을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의 연대 길이 10자는 약 3.12미터 정도 된다. 곧 당시 제주도의 봉화대, 곧 연대의 높이도 3.12미터 정도 되고, 너비도 3.12미터 정도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에 남아있는 연대와 보수되기 전의 옛개연대의 규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섭지코지 연대

- 연대의 모양 : 방형(方形), 마름모꼴
- 연대 윗부분의 화덕 : 원형, 직경 4.2m
- 연대 아랫부분의 길이 : 9m×8.9m
- 연대 윗부분의 길이 : 8.6m×8.6m
- 연대의 높이 : 3.1m
- 입구 폭 : 0.7m

옛개연대

- 연대의 모양 : 평면은 방형(方形), 윗부분은 타원형(橢圓形)
- 외부 직경 : 7.6m
- 내부 직경 : 2.4m
- 외벽과 내벽 사이의 폭 : 1.8.m
- 외벽 폭 : 1.5.m
- 바깥 높이 2.7m
- 안쪽 높이 1.2m

이상과 같이 제주도 연대의 모양은 지형지세에 따라 방형, 특히 마름모꼴이나 원형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후대에 보수하거나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크기도 달라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돌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오름 꼭대기의 봉수는 대부분 돌로 쌓지 않고 흙으로 뚝을 만들어서 이용했다. 그러나 봉화대를 재구성한 곳을 보면 대부분 돌로 축조해 놓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보수하기 전 옛 왜개연대(1996)



보수한 뒤의 현 왜개연대(2013)



흙으로 쌓았던 토산봉수 터

6. 마무리

우리는 조선시대에 제주도 오름과 해안가의 높은 동산에 설치했던 봉수와 연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봉수와 연대 이름은 고증을 하지 않은 채, 일부의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 한자음 그대로 읽고서 마치 본래의 봉수 이름인 양, 본래의 연대 이름인 냥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봉수와 연대의 수는 시대마다 달라졌는데 이에 대한 고증도 전혀 하지 않고서, 조선 후기에 확정된 25봉수, 38연대가 마치 조선시대 내내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봉수와 연대 터를 제대로 고증해내지도 못하고 있다.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연대를 마치 그등애연대(말등포연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라 하는 것, 굴메오름(군산) 꼭대기에는 봉수가 없었는데도 이 오름 꼭대기에 봉수가 있었던 듯이 설명한 책도 있고, 이곳이 아니라고 인식하고서는 엉뚱한 곳에 비정해놓은 책자들도 많다. 제주시 삼양동 원당오름, 곧 큰웬당오름에는 봉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오름 북쪽 '망오름(죽은웬당오름)'이라는 곳에 봉수를 설치했는데도 큰웬당오름 산책로에 버젓이 봉수대 터라고 쓴 팻돌도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봉수와 연대의 역할과 기능, 체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름 꼭대기에 설치되었던 봉수는 대개 돌담을 쌓지 않고 흙으로 쌓아올린 듯한데도, 보수해서 설치한 것을 보면 대부분 돌담으로 쌓아올린 것도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소중하게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재! 제대로 비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설명하는 안내판도 없다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